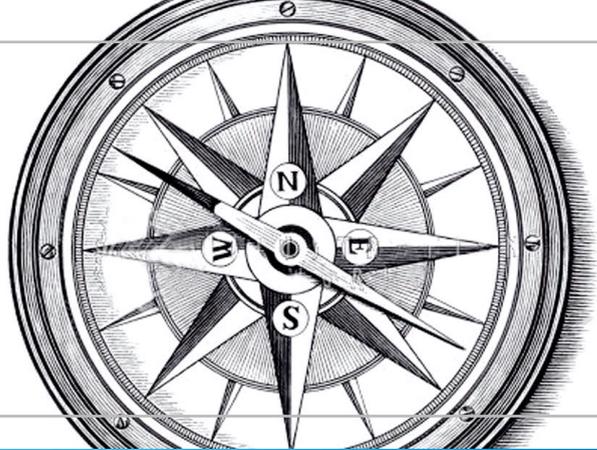


2007. 1



알기 쉬운  
한·미 FTA 농업협상

대한민국 정부

알기쉬운  
한·미 FTA  
농업협상

---

---

---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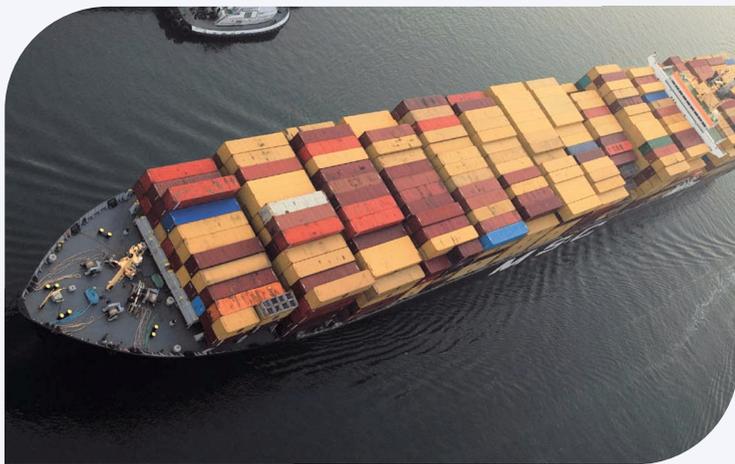


1. 한·미 FTA, 왜 해야 하나요?
2. 한·미 FTA 협상 어디까지 왔나요?
3.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되나요?
4. 협상대상에서 쌀이 제외될 수 있나요?
5. 민감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6. 민감 품목의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요?
7.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되나요?
8. 우리나라 위생·검역 제도를 바꾸게 되나요?
9. 협상 타결이후 대책은 무엇인가요?
10.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 1

## 한·미 FTA, 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고, 시장이 작지만 수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70%수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과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과 함께 국제무역체제를 구축하는 두개의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도 칠레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시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 한·미FTA 협상 어디까지 왔나요?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2월 양국이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협상은 6~8주 간격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2007년 1월 현재 6차 협상까지 열렸습니다.

양국은 2006년 5월 중순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1차(6월), 2차(7월) 협상을 통해 양측의 주요 제도 및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9월 개최된 3차 협상부터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4차 협상(10월,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5차 협상(12월 미국 몬타나)에서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 1월 서울에서 개최된 6차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